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전략 소식지 3권 8호 2017년 8월

7월 주요활동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한·미 양국 군은 7월 4일과 28일 북한의 불법적이고 지역 안보를 뒤흔드는 도발행위에 대응해, 한·미 연합 미사일 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 7월 4일과 29일 실시한 실사격훈련에는 한국군의 현무 2와 미8군의 에이태믹스(ATACMS) 지대지탄도미사일이 동원되었으며, 7월 7일에는, 한·미·미·일 전투기가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며 순차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동해안에서 실시한 연합 탄도미사일 실사격훈련은 연합전력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으로 한미 동맹군은 전전후 작전환경에서 긴급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브룩스 사령관은, “전시와 평시를 구분 짓는 것은 오직 선택에 따른 우리의 자제일 뿐이다. 이번 연합 미사일 실사격훈련이 보여주었듯이 한·미 동맹 통수권자들의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우리는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며 “만약 누구라도 그 사실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7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한반도로 전개한 미 B-1B 전략폭격기 ‘랜서’ 2대는 한국과 일본 공군 전투기와 함께 각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먼저 B-1B 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하여 한국의 F-15 전투기, 미 공군 F-16 전투기와 함께 필승사격장에서 공대지 사격훈련을



사진: 김지아 포. 제리오 레사

실시했다. 이후 괌 기지로 복귀 중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주한미군 부사령관 토마스 버거슨 공군 중장은 “미 전략폭격기와 한국 전투기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살상전력의 2개 일 뿐.”이라며 “이번 훈련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지역을 방어하고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가용한 일체의 전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7일은 한국전 정전 64주년이었다. 상기해야 할 것은 이 협정이 한국을 폐허로 만들고 유엔군 수천명을 포함한 수백만명의 사상자를 남긴 3년간의 전쟁의 궁극적인 종식이 아니라 1953년 단순히 전투를 중단하는데 합의 한 것이라는 점이다.

미8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새로운 역사의 장 시작 (7월 14일)



사진: 장동민 백장

미8군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1953년부터 서울에 주둔해 왔다. 64년이 경과한 오늘 미8군은 새로운 본부 앞에 도열하여 리본커팅을 하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본 행사는 7월 11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렸으며 미8군의 중대한 변화와 용산에서 평택으로의 성공적인 재배치를 기념하였다.

미8군사령관 밴달 장군은 “부대 재배치는 관련된 수많은 조직의 지속적인 노력, 양국간의 협의와 공동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이 성공적인 재배치에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해 준 수천명의 한미 장병과 민간인 여러분의 노력을 치하하는 바이다. 이들의 노력이야말로 향후 수 십년동안 한반도에서 근무할 한미 장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기지이전사업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수행해온 모든 임무에서 어떻게 힘을 합쳐 거듭 성공을 거두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며,

“이는 양국 관련 조직이 수많은 난관을 함께 해결하고 조율하여 마침내 미8군 본부가 최신의 시설을 구비하여 향후 한반도에서 원활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 ‘같이 감시다’ 정신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7월 주요 방문객

사령부와 우리의 임무 및 부대원들에 대해 알리고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귀빈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다. 다음은 지난달 사령부를 찾아 주신 고위급 방문객이다.

-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의원 (공화당-앨라바마)
- 마크 내퍼, 주한 미대사대리
- 월터 “스킵” 샤프 미 예비역 육군 대장, 전 주한미군/연합사/ 유엔사령관
- 로버트 카탈로, 미 국가지리정보국장
- 제리 마르티네즈 미 공군 중장, 주일미군사령관
- 프레드 미젯 미 해군 중장, 미 해안경비대 태평양지역 사령관

“이번 요격 이후, 특히 이번 요격시험이 15번째 또는 16번째 성공적인 사드 요격 시험인 것을 고려할 때,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목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격퇴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가 이를 요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일각에서는 사드의 능력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드의 능력을 의심치 않습니다.”

- 미 미사일방어국의 사드 요격 시험 성공 후 빈센트 K.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